

# 말씀의 샘

## 심령의 변화와 행동 <여호수아 1:5~9>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살까? 어떻게 하면 잘될까? 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길 바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바뀌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될까? 축복받을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꾸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뀌길 바라십니다.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당장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변화의 과정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기에 우리 심령의 변화에 대해 뒤로 제쳐둘 수 있겠지만, 우리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며 우리 훈련하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기술이 없어서, 농사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담 자체가, 아담의 심령 자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환경의 저주가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와는 뱀을 했지만 실은 우리 심령을 탓해야 합니다. 항상 문제를 만나도 나를 돌아보고 내 성품을 바꾸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을 갖기 위해 기도하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우를 살해한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의 방식의 문제보다도 제사하는 사람을 먼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의 심령이 받으실만한 제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심령이 변화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심에 대한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경제적 가치도 없어 보이고 크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하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40년 전 모세를 부르실 때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백년동안의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준비와 조건치고 참 특이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다할 군사적 전략도 없고, 준비해야 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조건이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훈련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강박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 이유가 완고한 마음, 믿지 않는 악심 때문이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3: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시즌이 그들에게 빨리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이나 지체하며 시간을 다 보냈고, 그나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빨리 새로운 시즌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의 마음과 심령은 변화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 둘째,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훈련되어 변화된 자가 형통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주신 기회와 은혜를 선용함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선용하기 어렵습니다. 심령이 변화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령이 변화된 자가 그 기회를 최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는 무엇으로 이뤄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이 율법책(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네 마음속에 가지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는 약속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어부였습니다. 배도, 그물도, 일하는 사람도 똑같은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무대삼아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배위에서 말씀을 주워들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배도 바뀐게 없고, 그물도 바뀐게 없고, 고기잡는 갈릴리 호수도 바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기잡는 사람도 그 사람 그대로인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은 시작됩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린 가진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내 존재, 내 심령을 점검하십시오.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2016. 8. 14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8. 14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에스겔 47장 1~12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은혜가 흐르게 하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적 삶이 있는  
두란노 교회

